



청계천 복원의 교훈



성태용 본지 논설위원 건국대 교수

청계천, 맑은 계류가 흐르는 냇물이라는 뜻의 이름일 것이다. 그 이름과는 전혀 결맞지 않는 삭막한 콘크리트의 고가도로에 설 새 없는 차량의 행렬이 흐르는 그러한 거리로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이름이 되었다. 청계천으로 보아선 너무도 억울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러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해원되는 것인가? 청계천 복원 계획이 발표되고, 정갈 맑은 계류가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그러한 서울을 그리는 이들의 꿈이 푸른 하늘처럼 펼쳐진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대한 비용과 공사 과정의 교통대란에 대한 염려의 구름이 그 한편을 차지하고, 대책없는 절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리는 청계천 복원의 그림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중심에 중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이제는 정갈 및 사람의 뜻에 의해 후다닥 해지었다가 두고 두고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요즘에도 우리는 앞날에 또 복원해야 하는 청계천 복개 공사 같은 것을 여기 저기서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만금이 그렇고, 대형 댐 공사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과거에 지은 업을 단칼에 자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더 나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기에, 조심해서 매듭을 잘 풀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에 대한 헛갈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은 옳지만, 그것이 지나쳐 잘못된 방향을 옳은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이르면, 이를 일러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는 것이리라.

네티즌, 고 정몽헌 회장 49재 추모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49재를 추모해 주시도록 치르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정몽헌 회장 추모카페 (cafe.daum.net/monghun)'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정 회장의 넋을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위로할 예정"이라며 9월 21일 서울 계동 현대아산 앞에서 49재 행사를 갖기로 했다 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네티즌들이 불교의식인 49재를 추모해 주시도록 진행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장군속미

얌체 낚시꾼 "해도 너무한다"



'남이야 어찌 되든 나만 즐기면 된다?'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양식어장 주변에서 고기를 잡는 얌체 낚시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예 부서진 양식장 위에 올라가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이들이 주차한 차 때문에 복구작업 마저 방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못한 해양경찰이 자체를 추궁하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낚시꾼들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권력은 타인이나 타집단의 의지에 반하여 제약이나 강제를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권위는 사람들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력을 지칭하며, 따라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수반한다.

근자에 우리사회의 위기감은 위협수위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 현대사에서 사회적 위기감이 높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있었으랴만은, 최근의 위기감은 9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의 재현에 대한 우려와 겹치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번 망가져야 해.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거야"라는 자조적 농담이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만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현실은 어렵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희망도 볼수없는 상황이니 갑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부 자기 주장만 나올 수밖에.

사태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하나의 파동을 그린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늘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안 좋을 때 이를 잘 관리하고 빨리 되살아날 수 있는 끈기와 탄력을 발휘하는 사회여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없는 것이다. '내 방식대로 하든'



불자 세상보기

김명관

아주대 교수, 사회학

합리적인 권위

지, 내 배를 불러주든지, 아니면 다 죽고 말지, 뭐"라는 식으로 풀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사회 지도층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은 늘 정답으로 등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들과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공직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만 좀 빨리 푸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해법의 일단은 우리 사회의 권위구조를 하루 빨리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근본적 원인은 권력 소재의 불분명함도 아니고, 또 정치권의 소모적 내분도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서로 타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현 위기상황이 구조적으로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이는 것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린, 권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조소와 경멸이다. 오늘날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아닌 권위가 우리 사회에 맞나

남아 있을까?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

그러나 확고하고 안정된 권위구조의 양적, 질적 존재는 한 사회의 무게중심을 낮고 안정되게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권위의 실종에 의해 무게중심이 붕괴되어 조그만 충격에도 출렁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정치권, 언론, 모두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 해법은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장기적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국민들에 의해 창출되는 합리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이처럼 동시에 기반한 합리적 권위구조를 당장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권위를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닭과 달걀의 딜레마에서 해방 수는 없지 않은가. 어디에서부터인가 풀어나가야 한다. 시기를 놓치지 전에 하루빨리 합리적 권위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우리국민 모두의 합의에 의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위기의 근원은 권위의 부재와 부재에 있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사찰과 지역공동체'

변화·발전의 중심에 있어야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



전통과 관행 바꾸고 기복신앙 극복 과제

사찰과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세계화 및 지방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될수록 그리고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자율성은 확대되고 따라서 지역사회가 사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만큼 사찰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아진다.

만약 사찰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찰의 사회적 정당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며, 이는 포교의 실패와 해당 사찰의 폐쇄 및 불교의 저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인을 동일할 사고와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사찰의 지역사회활동은 백화전형과 전문전형, 상부상조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백화전형은 2개 이상의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문전형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인다. 상부상조형은 신도 상호간의 친목도모나 상호부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각 사찰은 이론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불안정한 역사와 구성원들의 의식구조 및 신행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사찰의 지역사회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통과 관행이 바뀌어야 하고-종단의 안정과 기복신앙의 극복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또한 불교인의 의식구조-불교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별개로 사고하는-가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전통과 관행, 그리고 의식구조가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각 사찰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활동의 이념과 목표 설정 △객관적 조건 이해 △내부적 조건 정비 등을 유념해야 한다.

실상사의 지역공동체 운동



이향진 한생명 운영위원장

환경, 생명의식 확산 및 경제활성화 기대

남원 실상사 인근(남원시 산내면)에 불교의 현대화와 사찰의 지역화, 목석으로 하는 대규모 지역공동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단법인 한생명(이사장 도법)과 남원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들이 주제로 진행 중인 지역공동체 운동은 생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9월 19일 조계사 불교대학 4강의실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와 이향진 한생명 운영위원장은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과 '실상사의 지역공동체 운동'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정리-남동우 기자

명과 지역 살리기를 기본 원칙으로, 귀농전문학교가 개교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3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크게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네 부분으로 이뤄졌다. 교육 사업은 현재 실시 중인 한생명 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찰문화교육원과 불교계 최초의 대안중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지역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2004년 1월 1일과 3월 1일 개교 예정인 대안고등학교, 생태유아원 등 유아원부터 성인까지 교육시스템의 일일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리산 생명문화교육단지 명명된 이 사업을 위해 이미 4번5천여명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문화 사업으로는 봉축행사들 지역문화행사로 연계하는 등 불교 문화와 지역문화를 결합하는 사업과 지역발전협의회 조직,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의원 정책토론회, 지역 생태공원 사업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 문화센터 건립, 정보화마을 조성 등을 준비 중이다.

복지 사업으로는 개실중인 여성농업인 센터와 주민 건강사랑방의 건강타운·실버타운·생태마을·녹색체험마을 조성 등을 계획 중이다.

경제 사업으로는 실상사 유기재배 농장, 환경농업작목반, 친환경 경농업 시범사업, 지역 특산물 개발 등을 시행중이며 산야초를 활용한 발효효소생산사업과 지역특산물 및 유기농산물 판매단지·지역생태관광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재정사업에 의한 기금 조성, 출향인사·한생명 등의 지역발전후원금, 생명의 생산지원금, 종단차원의 자여사업지원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환경과 생명의식 확산을 비롯해 귀농자 유입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자치적 힘합, 불교 및 수행자의 위상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자정보 강적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필 속의 모든 정보가 실어 있습니다. 사찰안내: 규격 5×5cm=50,000원. 전화: 02)732-1522 (직) 02)737-8881 (대) FAX: 02)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아산과 공주 경계 ● 부지: 총 3500평, 대지 200평 ● 법당: 정동으로 13평. ● 묘사채: 30평, 산신각 2평 ● 삼존불, 미륵불 봉안 ● 아산 산세수려, 전망 좋음 ● 가액: 3억 5천 041)841-0751

사찰 안내 ● 위치: 원주시하라대역 ● 평수: 210평 ● 법당2개, 석탑3개, 산신각 ● 가액: 2억 3천만원 (시설비 포함) 011)471-1996 033)766-0058

사찰터 안내 ● 위치: 충북보은에서 10분거리 ● 산종교 약수물이 졸으며 금강상류가 앞에 보이는 사찰터로 적당한 곳 ● 전 1.834평, 평당가 35,000원 ● 답사후 절충가능. 주민 직접 011)792-8969 016)401-3767 야간 043)542-7944

사찰(인법당) 안내 ● 위치: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자리잡은 도심포교 또는 이인포교, 전세 주차 전용 주차 ● 부지: 약 3000여 평, 가평 7000여 평, 임의 ● 건물: 평수 45평, 법당 15평, 스님방 1, 공양방 1, 복도, 삼층당상실, 심의 화장실 ● 건물2: 묘사채 40평, 방6개, 복도, 복도, 화장실, 심의 화장실 ● 무허가 4차선 건물로써 건물터기 구형에 등기되어 있음(평당 1억 2천만원) ● 가액: 건물1 - 1억 2천만원(1년내내건물) 건물2 - 1억 3천만원(1년내내건물) ● 2차 매매도 됨. 가액 절충가능. 전세도 됨 011)709-7659 / 02)932-7659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청평 ● 평수: 1,860평, 입법당10평, 산신각 ● 가액: 3억 5천만원 ● 외곽순환도로 4차선 공사중. ● 서울-춘천간 지하철도 공사중.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산세수려, 경관 좋음 031)585-7687

사찰(토굴) 안내 ● 위치: 도봉산 ● 부지: 200평사용 ● 법당: 20평(목조단청) ● 묘사: 60평 ● 가액: 60만원 ● 서울의 명산 ● 전국소재 사찰·암자·포교당 양도, 양수허실본 연락바랍니다. 정인불사 011-707-8204 (주세사양도장정전전문 02)735-0750 정인사)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고령군 개진면 ● 법당, 목조 기와집 ● 대지: 72평 ● 묘사채 7자 방4개, 수세식화장실 ● 삼존불, 후불탱화 모셔져 있음 ● 가액: 5천만원 011)488-1303 055)963-9884

포교당 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인구밀집지역, 포교 적합 ● 평수: 50평, 오존불 봉안 ● 법당, 종무소, 방3, 주방, 욕실 ● 불구 및 주방 용품 일체 제공 ● 목판 오시면 필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011)9484-6333

토굴 안내 ● 위치: 강원도홍천 ● 건물 18평, 6평 등기 필 ● 주변 경관, 산세 수려 ● 가액: 3천만원 019)9192-9999

사찰 안내 ● 위치: 전북익산시황등면 ● 법당 25평(주지실), 묘사 50평 ● 약사여래입불조선회(시대 조성) ● 등기필 300여평, 시유지 1천평 ● 시내인접 ● 가액: 1억 3천만원 ● 장난 전화 사절합니다 011)677-8525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북구덕천로터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약사여래입불조선회(시대 조성)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500만원 055)386-7463/016)355-4264

사찰(금) 안내 ● 위치: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매 ● 평수: 총면적 3천평(허가필 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묘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교구본사·사찰·연수원·수련원·기타·기타종교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016)838-9394

암자별장 및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 부근 ● 부지: 280평, 입법당 22평 ● 목판 오시면 필 ● 조용허공부할실 스님이나 일빈인 ● 가액: 1억 2천만원 016)293-4341

사찰 안내 ● 위치: 충남공주 ● 대지 430평, 실평수 1천평 ● 입법당 30평, 목조 황토기와 ● 2002년 11월 완공 ● 특징: 계곡 산세 좋고 청정지역 아산15분거리, 대전-평안간 고속도로 나들목 4m지점, 2006년 완공예정 ● 가액: 1억 8천만원(절충 가능) 017)479-7879

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차일산지리막 계곡이 흐르고 산세가 수려함이다 ● 대웅전 36평, 산신각 10평, 묘사채 30평 ● 대(대)방을 겸비한 욕실, 주방 ● 주차시설 완비 ● 가액: 전세 4천만원 033)345-5597 011)771-5597

사찰(금) 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파계사 부근 ● 대지: 306평(법당 20평, 묘사채 방 52칸) 하우스 공양간 20평 ● 산신각 5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함 ● 가액: 2억 8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53)985-9824 017)522-5544

사찰 안내 ● 위치: 대구시 서구 ● 평수: 40평, 최고시설 A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도심속 최고 포교적지 ● 즉시 법회 가능 016)9633-0302